

수비·조직훈련은 기계처럼 강팀 앞에서는 독수리처럼

광주FC 이정호 감독 “월드컵 보며 많이 배워... ‘결과’ 위해 독하게 몰아붙일 것”

폭설을 뚫고 광주FC가 기지개를 켜다. 2022시즌 K리그2 ‘챔피언’ 광주가 휴식을 끝내고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다시 모였다. 카타르 월드컵 개최로 일찍 시즌을 마무리했던 선수들은 예년보다 넉넉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선에 섰다.

광주는 올 시즌을 25승 11무 4패(승점 86)로 마무리하면서 압도적인 우승과 함께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하게 됐다.

더 크고, 더 빠른 무대로 돌아가게 된 만큼 ‘독한 동계훈련’이 예고된 상황.

광주 지역에 내린 폭설로 첫날 실외 훈련은 지리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실내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FC폭포로 임대됐던 주영재와 함께 조성권(울산대), 정지훈(유성생명과학고) 등 새 얼굴들도 가세해 첫 미팅과 훈련을 소화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이정호 감독은 “휴식기를 가족과 보냈고 월드컵 기간이라 경기를 보면서 공부도 했다. 내년 구상에 대해 구단과 이야기 많이 하고 일하게 보낸 것 같다. 막상 지나고 보니 두 달이 너무 짧았다.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웃었다.

이 감독은 지난해 12월 말에 광주 새 사령탑에 선임됐다. 초보 감독으로 바쁘게 시즌을 준비했었던 이 감독은 이번에는 ‘우승 감독’으로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그만큼 준비할 것도, 할 일도 많다.

그는 “출근하면서 ‘이제 또 스트레스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할 일이 엄청 많다. 작년에는 5-

6주하고 시즌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0주 정도 시간이 있다.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어떻게 짤까를 두고 생각을 많이 했다. 이왕이면 잘해야 한다”며 “K리그1에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차피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생각이다”고 ‘이정호 스타일’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새 시즌을 위해 ‘결과’를 보면서 선수들을 더 독하게 몰아붙일 생각이 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이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 선수들이 즐거워야 한다. 선수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한 번 멋지게 해보려고 한다”며 “동계 훈련의 초점은 이미 다 맞았다. 수비, 조직훈련을 기계처럼 할 것이다. 선수들이 눈빛만 봐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다. 올 동계훈련은 수비, 조직력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시민구단의 한계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감독은 선수들을 이끌면서 더 단단한 팀을 만들 생각이다.

이 감독은 “쉬면서 선수 영입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 재정이 좋은 팀이 아니니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구단하고 그런 부분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두 명 정도를 타 구단에 뺏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이번 시즌 끝나고 우리 선수들 영입 요청, 문의가 많이 왔다. 우리 선수들 많이 성장시켰구나, 우리 선수들 많이 노력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다”고 밝혔다.

도전자로 1부 리그에 오르게 되는 이정호 감독과



광주FC 이정호 감독

광주. 19일 끝난 ‘지구촌 대축제’ 카타르 월드컵은 ‘희망’이 됐다.

이 감독은 “축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약팀이 강팀을 잡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며 “월드컵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거론하는 약팀이지만 좀 더 노력해서 강팀을 잡으면 우리 선수들이 빛나는 것이다. 한 번 더 부딪혀 보려고 한다. 희망을 보았다”고 2023시즌 도전을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휴식을 끝내고 재소집된 광주FC 선수들이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다.

키움 이정후 “내년 시즌 끝나고 빅리그 도전”

KBO리그 타격 5관왕에 빛나는 2022시즌 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정후는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구단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2017년 입단한 이정후는 내년 시즌(2023년)까지 뛰어난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인 7시즌을 채우게 된다. 그동안 해외 진출 의사를 꾸준히 밝혔던 이정후가 구단에 공식적으로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단 첫해인 2017년부터 타율 0.324로 활약한 이정후는 올해까지 6시즌 통산 타율 0.342를 때린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다.

KBO의 통산 타율 집계 기준인 3000 타석을 넘

긴 타자 가운데 타율 1위다.

올 시즌은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0.349)과 안타(193개), 타점(113점), 출루율(0.421), 장타율(0.575)까지 타격 5개 부문 1위를 휩쓸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이정후 선수의 도전 의지를 응원하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면서 “올해 구단 업무는 중요한 상황이라, 내년 초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에 입성한 직후부터 리그 최고의 정확도를 증명한 이정후는 일찌감치 해외 진출 의지를 보여 왔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체육인들이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체육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유공자 시상식 열려

근대5종 세계선수권 2관왕 전용태 ‘올해의 선수’

광주시체육회가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시체육회는 19일 광주시 서구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빛낸 광주체육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103회 전국체전 해단식을 겸해 열린 행사에서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과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근대5종 세계

선수권대회 2관왕 및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한 전용태(광주시청)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감독은 오상봉 광주체육회 체조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는 나수경 광주시체육회 에어로빅 지도자와 이명열 월곡FC U-12클럽 축구 지도자가 선정돼 상을 받았다.

전국체전 해단식에서는 문건영(광주체고, 체조), 신용규(조선이공대, 레슬링), 광주대(여자단체, 농구)가 각각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팀)를 대표해 포상금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I페퍼스, 팬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23일 이벤트...세계적 첼리스트 김규식 공연·경품 증정 등

광주 AI페퍼스 배구단이 오는 23일 ‘AI페퍼스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AI페퍼스는 페퍼스타디움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GS칼텍스전에 앞서 행사를 시작한다.

AI페퍼스는 오후 6시부터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스스 앙상블을 초청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스스 앙상블은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을 들려준다. 첼리스트 김규식을 중심으로 기타 박윤우, 아코디언 정태호, 더블베이스 오정택, 피아노 오은철로 구성된 팀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대표곡들을 라이브 연주한다.

관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관객 전원에게 AI페퍼스 기념 티셔츠를 증

정하고 경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선수단 애장품과 AI페퍼스 페퍼블루 마스크 인형을 선물한다.

당일 관객 선착순 200명에게 AI페퍼스파트너사인 푸마의 활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페퍼스타디움 ‘푸마존’과 ‘이디야 커피존’을 예약하면 각각 푸마 X AI페퍼스 맨투맨 티셔츠, 이디야 쿠키 및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장매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구단주는 “올 한 해 AI페퍼스에 끊임없는 응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축하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국내 클래식 공연과 배구경기 관람을 통해 AI페퍼스 팬들이 뜻 깊은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양연수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

‘한국 여자 스쿼시 간판’ 양연수가 2023년 스쿼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양연수(32·사진 오른쪽)가 지난 16일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2023 스쿼시 국가대표 여자부 선발전에서 5승 2패로 3위에 올라 태극마크를 달았다.

양연수는 발 뒤꿈치 부상에도 선발전 7경기에서 5승을 거뒀다. 나머지 2경기는 부상이 재발해 기권했다.

양연수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돼 매우 기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돼 많이 아쉬웠다”며 “부상을 다스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 내년으로 연기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 오성학과 송동주도 각각 남녀부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2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3관	아바타: 물의 길, 압꾸정
4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5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6관	아바타: 물의 길, 플레이 포 더 데블
9관	아바타: 물의 길
7관 씨네커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8관 씨네커를	올빼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압꾸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2 광주국악상설공연(12월)
 일시 : 2022-12-01(수) ~ 2022-12-22(목)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3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일시 : 2022-12-21(수) ~ 2022-12-25(일)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정2
 문의 : 062-522-8716

즐거움
문화산책